

# 柯琴의 「太陽病解」를 통한 『傷寒論』 太陽病의 개념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李相協\*

## A study on the notion of *Shanghanlun* Greater yang disease from Ke-qin's *Taiyangbingjie*

Lee, Sang-Hyup\*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Dongeui University

**Objective** : Zhang, Zhongjing(張仲景)'s *Sanghanlun*(傷寒論) is based on Six-channels system(六經) to classified a disease. But the notion of Six-channels system seems to be a very various angles. For example, Meridian and collateral theory(經絡說), Viscera and Bowels theory(臟腑說), Grade theory(段階說), Surface theory(地面說), Symptoms theory(症候群說), Six-disease theory(六病說), Eight principle pattern theory(八綱說) and all the rest of it. Above all things Meridian and collateral theory was very frequently quoted to explain the Six-channels system(六經). But it's true notion is not restrict to a meridian vessel(經脈).

**Method** : I will try to describe the *Sanghanlun*'s Greater yang disease(太陽病) through the Ke-qin(柯琴)'s *Taiyangbingjie*(太陽病解), and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existing perception that Greater yang(太陽) is connected with Bladder meridian(足太陽膀胱經) is wrong.

**Result** : Ke-qin's *Taiyangbingjie* explained the greater yang disease was connected with Heart(yang within yang), which was located in the top half and the outer layer of the body. In addition to the presence of the diaphragm or lungs are involved with.

**Conclusion** : Practical meaning of greater yang disease is not connect with Bladder meridian, but it is related to the Heart and Lung for maintain the Nutrient and defense circulation (營衛循環).

**Key Words** : Ke-qin, Greater yang disease, Yang within yang, Nutrient and defense circulation.<sup>1)</sup>

\* 교신저자 : 李相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52-57번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sanghyup@deu.ac.kr Tel : 051)850-8610

접수일(2012년 4월 29일), 수정일(2012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17일)

## I. 序 論

張仲景의 『傷寒論』은 六經에 근거하여 병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素問·熱論』에서 六經으로證을 나누는 것을 기초로 하여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의 六經으로 辨證論治의 綱領을 세운 것이다. 이것은 傷寒 外感病의 발전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각종 증상을, 正氣의 強弱과 感受된 邪氣의 淺深 및 그 病理變化 등 각 분야의 요소로 분석하고 종합한 것으로, 六經病證이 출현한 것은 결코 단순하게 고립된 여섯 가지 증후군의 구분이 아니라, 經絡이나 臟腑와 더불어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따라서 오랜 세월동안 학자들은 『傷寒論』에서 말하는 ‘六經의 實質’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으니, 經脈說, 臟腑說, 段階說, 地面說, 症候群說, 六病說, 八綱說 등 논쟁이 그치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經脈說’과 연계시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sup>2)</sup>.

그 이유는 『內經』에서 사용된 ‘三陰三陽’이라는 용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쉽게 ‘經脈說’과 서로 연계시켜 생각하게 하였으며, 특히 『素問·熱論』에서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 腰脊強; 二日, 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於目, 故身熱, 目疼而鼻乾, 不得臥也; 三日, 少陽受之, 少陽主膽, 其脈循脇, 絡於耳, 故胸脇痛而耳聾. ……”<sup>3)</sup>라고 하여 확실하게 ‘經脈’에 따라 傷寒의 病理를 설명하고 있어서, 더욱 사람들로 하여금 『傷寒論』에 나오는 ‘六經’은 응당 ‘經脈’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든 것이다<sup>4)</sup>.

그러나 柯琴이 일찍이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여

말하였으니, “王叔和는 仲景의 六經이 ‘經界’를 말하는 것이지 ‘經絡’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內經』의 熱病論을 인용하여 序例로 만들고 『傷寒論』의 첫머리를 삼음으로써, 그 六經의 證治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六經의 이치가 밝혀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무릇 熱病에 나오는 六經은 오로지 經脈을 위주로 병을 삼은 것인데, 다만 表裏의 實熱만 있고 表裏의 虛寒이 없으며, …… 다만 汗 하거나 泄하는 방법만 있고 溫하거나 補하는 예가 없는 것이다.”<sup>5)</sup>라고 하여 『素問·熱論』의 ‘經脈說’과 『傷寒論』의 ‘六經說’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六經’이라는 것이 ‘經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傷寒論』에서 말하는 ‘太陽病’과 十二經脈 중 ‘足太陽膀胱經’과의 연관성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전의 의가들은 ‘太陽主表’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足太陽膀胱經과의 관련성을 유도하려고 牽強附會식 설명을 한 반면에, 柯琴은 ‘太陽’을 인체에서 陽中之陽의 위치에 존재하는 ‘心’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여 이전의 의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논자가 기준에 가지고 있던 太陽病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에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이전까지 나왔던 柯琴에 대한 연구로는 張祐彰과 洪元植이 “柯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傷寒論翼』을 중심으로)”<sup>6)</sup>를 통하여 柯琴의 의학적인 사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논문이 있고, 張祐彰과 丁彰炫이 “柯琴 『傷寒附翼』 翻譯 研究”<sup>7)</sup>를 통하여 柯琴의 변증의학의 실증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제를 단일화하여 太陽病에 대한 것을

1)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 의학사. 2011. p.191.

2) 劉渡舟, 劉渡舟傷寒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8. p.17; 田炳薰, 禹元洪, 鄭遇悅. 傷寒論의 六經概念에 對하여. 동의병리학회지. 1990. Vol.5. pp.131-138; 丁彰炫, 朴贊國. 仲景『傷寒論』의 六經實質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의학학회지. 1993. Vol.7. pp.232-268.

3)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183-184.

4) 馬堪溫, 趙洪鈞. 傷寒論新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96, 이동희, 이준범, 황만섭, 윤종화. 『素問·熱論』 六經分證과 『傷寒論』 六經辨證의 상관성에 대한 研究.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4. Vol.21, No4. pp.145-156.

5)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5. “叔和不知仲景之六經, 是經界之經而非經絡之經. 妄引內經熱病論作序例, 以冠仲景之書, 而混其六經之證治, 六經之理因不明. …… 夫熱病之六經, 專主經脈爲病, 但有表裏之實熱, 並無表裏之虛寒, …… 但有可汗可泄之法, 並無可溫可補之例也.”

6) 張祐彰, 洪元植. 柯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傷寒論翼』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2. V15-2. pp. 120-144.

7) 張祐彰, 丁彰炫. 柯琴 『傷寒附翼』 翻譯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V18-3. pp.183-206.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기존에 『傷寒論』에서 설명하던 ‘太陽病’에 대한 개념이 ‘足太陽膀胱經’이라는 臟腑 및 經絡과의 연관성 이외에, 인체의 제일 表層 이면서 上部에 존재하는 陽中之陽(巨陽)인 ‘心’과 연관된 병증이고, 그것이 또한 횡격막 이상의 부위에 존재하는 臟腑인 肺와도 관련되어 ‘心主營, 肺主衛’하는 營衛循環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병증임을 柯琴의 六經病에 대한 해석 중 「太陽病解」에 나오는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內經』과 『難經』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서로 연계 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本 論

기존 의가들은 『傷寒論』의 ‘太陽病’에 주로 나오는 桂枝湯과 麻黃湯類의 처방을 설명함에 있어 대부분 營衛循環과 관련된 병증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주로 足太陽膀胱經과 관련지어 ‘太陽主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柯琴은 『素問·金匱真言論』에 나오는 “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背爲陽, 陽中之陰, 肺也.”<sup>8)</sup>라고 한 것을 살펴볼 때 ‘太陽’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꼭 經絡의 足太陽膀胱經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 있어서의 공간적인 위치로 보아 횡격막의 上部에 존재하면서 ‘心主營, 肺主衛’하여 인체의 營衛循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心肺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의 傷寒 연구자들에게 만연되어 있던 ‘傳足不傳手說’의 모순점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또 하나는 『素問·熱論』에 나오는 “巨陽者, 諸陽之屬也.”<sup>9)</sup>라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太陽主表에 대한 개념

일반적으로 外感 邪氣가 인체에 처음으로 침입한 것을 ‘太陽病’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足太陽膀胱經이 表部를 주관하면서 인체의 울타리가 되므로 外感 邪氣가 肌表에 침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太陽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外感 表病을 또한 ‘太陽病’이라고 부르면서 ‘太陽主表’의 이론이 생기게 된 것으로, ‘太陽主表’의 이론은 足太陽膀胱 및 그 經脈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이론은 膀胱이 비록 六腑의 하나로 그 위치가 체내의 下焦에 속하지만, 그것이 主管하는 것은 表의 皮毛와 腠理에 있다는 것으로,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첫째, 膀胱 足太陽의 經脈이 인체의 表部와 背部로 운행하면서 최고로 길면서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둘째, 膀胱이 밖으로 腠理와 毫毛에 호응하는데, 『素問·靈蘭秘典論』에 보면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sup>11)</sup>라고 하여 氣化한 津液이 腠理毫毛에 퍼지면서 皮膚를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表를 주관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셋째, 膀胱은 腎과 더불어서 表裏가 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經脈의 屬絡관계를 통하여 腎中에 있는 元陽의 氣의 기를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外部의 邪氣를 막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넷째, 인체에 있는 모든 陽經의 氣는 督脈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素問·熱論』에 보면 “巨陽者, 諸陽之屬也, 其脈連於風府, 故爲諸陽主氣也.”<sup>12)</sup>라고 하였으니, 足太陽經脈도 또한 風府穴을 빌려서 督脈과 서로 관통하면서 表를 주관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섯째, 인체의 五藏六府에는 각각 그 背俞穴이 있는데 모두가 足太陽經脈 上에 분포하고 있어서, 인체 五藏六府의 氣가 모두 背俞穴로 주입됨으로써 正氣의 充養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의 表를 주관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10) 裴永清. 傷寒論臨床應用五十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p.37-39.

1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9.

12)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83.

8)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5.

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83.

하지만 위와 같은 해석 방법은 『傷寒論』에서 말하는 ‘太陽’이 인체의 表를 주관하고 足太陽膀胱經과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牽強附會한 것으로, 그 병리기전이나 치료법까지 연관지어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柯琴은 이러한 역대 의가들의 견해와는 다르게 『傷寒論』의 六經에서 말하는 ‘太陽’은 陽中之陽인 ‘心’을 가리킨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병리기전과 치료와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으니 그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太陽을 足太陽膀胱으로 볼 때의 문제점

#### (1) 傳足不傳手說

지금 많은 의가들은 『傷寒論』에 나오는 ‘六經’을 경략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대부분 足經脈에만 연관지어 병증을 설명하고 있으며, 手經脈에 대한 설명은 그 속에 포함된다거나 생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宋代의 韓祇和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가 말하기를 “지금 經文 중에 傷寒病의 傳受되는 바를 논하면서 手의 三陽三陰에 傳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古속에 그 설명을 들어보지 못하였다.”<sup>13)</sup>고 하면서 傷寒의 邪氣가 足經脈에만 전해지고 手經脈으로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朱肱도 역시 ‘傷寒傳足不傳手說’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은 대략 300여 년간 지속되었다<sup>14)</sup>.

韓祇和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람의 생명은 天地陰陽의 氣를 품수받아서, 半身 이상은 天의 陽과 같고 半身 이하는 地의 陰과 같은데, 간혹 四時에 평범하지 않은 邪氣가 있어서, 陽邪가 병이 되면 手經을 손상시키고, 陰邪가 병이 되면 足經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겨울철 독한 邪氣는 곧 足經에 적중하는 것이다.”<sup>15)</sup>라고 하면서

傷寒의 邪氣가 手經絡에는 전해지지 않고 足經絡에만 전해지는 까닭에 대해서 『周易』에 나오는 “同氣相求, 同聲相應.”하는 의미로 傷寒의 邪氣가 陰邪이기 때문에 足經에만 전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柯琴은 이러한 오류가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지금의 傷寒과 관련된 책에서 모두 ‘膀胱’으로써 ‘太陽’을 삼은 까닭으로, 足經에는 전해지지만 手經에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설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여 말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이전의 선배들에게는 도리어 ‘足經만 손상하고 手經은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학설이 생기게 된 것인가? 무릇 心主營하고 肺主衛하는데, 風寒이 와서 營衛를 손상시키는 것이 곧 手經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또한 大腸은 胃와 접하고 있어서 함께 陽明이라고 부르고, 小腸은 膀胱과 통하여 함께 太陽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傷하면 함께 손상되지 어찌 手足의 구분이 있으리오? 예를 들어 大便硬한 것은 大腸病인데 어찌 胃만이 주관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小便不利도 또한 小腸病인데 어찌 膀胱만을 가리키는 것이겠는가?”<sup>16)</sup>라고 하여 風寒이 營衛를 손상시키는 것은 곧 心肺를 손상시키는 것이니, 이것은 手太陰肺經과 手少陰心經을 손상시키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大便硬한 것은 胃와 함께 手陽明大腸經이 손상된 것이고, 小便不利한 것은 膀胱과 함께 手太陽小腸經이 손상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足經과 함께 手經도 손상됨을 설명하고 있다.

#### (2) 巨陽主氣

『素問熱論』에 보면 “巨陽者, 諸陽之屬也. 其脈連於風府, 故爲諸陽主氣也.”<sup>17)</sup>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의 의가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巨陽’을 대부분

同天之陽, 身半以下, 同地之陰, 或四時有不常之氣, 陽邪爲病則傷手經也, 陰邪爲病則傷于足經也. 故冬毒之氣則中於足經矣.”

13) 韓祇和. 傷寒微旨論. 中國醫學大系 卷6. 麗江出版社. 1986. p.738(544). “今經中論其傷寒病所傳受, 而不傳于手之三陽三陰, 古今未見其說焉.”

14) 鄭城采, 朴炫局.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87.

15) 韓祇和. 傷寒微旨論. 中國醫學大系 卷6. 麗江出版社. 1986. p.738(544). “人之生也, 稟天地陰陽氣, 身半以上,

16)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0. “何前輩, 反有傷足, 不傷手之說? 夫心主營, 肺主衛, 風寒來傷營衛, 卽是手經始. 且大腸接胃, 俱稱陽明, 小腸通膀胱, 俱稱太陽, 傷則俱傷, 何分手足? 如大便硬, 是大腸病, 豈專主胃言; 小便不利, 亦是小腸病, 豈獨指膀胱?”

1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83.

‘足太陽膀胱經’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柯琴은 이들과 다르게 이해하였으니, “心으로써 陽中之太陽으로 삼은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巨陽’이라고 부름으로써 존칭한 것이다.”<sup>18)</sup>라고 하였다.

결국 柯琴은 ‘巨陽’을 足太陽의 經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체에서 제일 表層에 있으면서 上部에 있는 ‘心’으로 이해하여야 온 몸의 氣血을 營衛하는 개념과 일치한다고 본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仲景은 心을 太陽으로 삼음으로써 밖으로 一身의 氣血을 거느리게 하면서 안으로는 五臟六腑의 經隧를 운행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膀胱이라면 州都之官이면서 精液을 저장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上焦의 氣化를 기다린 이후에야 능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 어찌 능히 外로 營衛를 맡으면서 諸陽의 氣를 주관할 수 있겠는가?”<sup>19)</sup>라고 하였다.

柯琴은 太陽病을 이해함에 있어 一身의 氣血을 거느리면서 五臟六腑의 經隧를 운행하게 하는 營衛循環과 관련된 ‘心の 기능적인 면’에 집중하여 병증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清代의 尤在涇은 여전히 經脈의 순환에만 얽매어서 『傷寒論』의 太陽病에 나오는 頭項強痛이나 背疼 등의 증상을 살펴 보면, 이것은 足太陽膀胱經과 관련된 병증이 결코 手少陰心經과는 관련이 없는 병증이라고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무릇 心으로써 太陽의 자리로 삼는 것은 서로 호응하지 않으니, 太陽의 증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心이 一身之主가 된다고 하여 膀胱의 지위와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sup>20)</sup>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仲景이 말한 太陽이라는 것은 단지 經脈만을 취하여 말한 것으로, 表邪로부터 傳經하여 裏로 들어가면, 熱이 膀胱에 멩쳐서 이에 비로소 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up>21)</sup>라고 주장하여 柯琴의 ‘心爲太陽’이라는

이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는 柯琴이 말하고자 하는 太陽病에 대한 개념이 橫膈膜의 上部에 존재하면서 一身의 氣血을 거느리는 心과 관련된 병증이기에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인체의 上部와 表部에 존재하는 병증’이면서, 기능적으로는 ‘營衛循環과 관련된 병증’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柯琴은 表裏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經絡적인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空間적인 위치에 따라서도 表裏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素問陰陽離合論』에 보면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sup>22)</sup>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心腎이 한 몸의 큰 表裏가 된다는 것이다. 膀胱이 腎과 더불어서 表裏가 되긴 하지만, 이것은 足經끼리 相絡하는 단순한 뜻일 뿐이다.”<sup>23)</sup>라고 보았으며,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또한 表裏라는 것에도 어찌 항상 일정해야만 할 이유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太陽과 少陽의 併病에서 肺俞와 肝俞를 자침하는 것이 있는데<sup>24)</sup>, 肝이 膽의 외측에 있으니 少陽의 表가 되고, 肺가 心の 외측에 있으니 太陽의 表가 됨이 아니겠는가?”<sup>25)</sup>라고 하여 心을 인체에서의 위치상으로 볼 때 ‘巨陽’으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表裏’라는 것에도 經絡이 서로 表裏가 되는 것도 있지만, 臟腑의 위치상 서로 表裏가 되는 것도 있으니, 橫격막의 上部에 있는 心과 肺가 서로 表裏가 되면서 기능을 보조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345-346. “仲景所謂太陽者, 只就經脈而言, 自表邪傳經入裏, 熱結膀胱, 乃始及于腑.”

18)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8. “心爲陽中之太陽, 故更稱巨陽以尊之.”  
19)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8. “仲景以心爲太陽, 故得外統一身之氣血, 內行五臟六腑之經隧. 若膀胱爲州都之官, 所藏精液, 必待上焦之氣化, 而後能出. 何能外司營衛, 而爲諸陽主氣哉?”  
20) 尤在涇 著,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醫學讀書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45. “夫心以爲太陽之位則不應, 無太陽之症, 以心爲一身之主, 不得易膀胱之位.”  
21) 尤在涇 著,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醫學讀書記).

22)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9.  
23)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p.28-29. “是心腎爲一身之大表裏也. 膀胱與腎爲表裏, 第足經相絡之一義耳.”  
24)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196. “太陽與少陽併病, 頭項強痛, 或眩暈, 時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大椎第一間肺俞肝俞.”  
25)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9. “且表裏亦何常之有? 如太陽與少陽併病, 刺肺俞肝俞, 豈非肝居膽外, 爲少陽之表, 肺居心外, 爲太陽之表耶?”

(3) 膀胱은 表를 주관하지 못한다

柯琴은 膀胱을 ‘太陽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傷寒論』에 나오는 몇 가지 조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少陰病으로 온 몸과手足이 모두 熱한 것은 熱이 膀胱에 있기 때문이니 반드시 便血이 있다.”<sup>26)</sup>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를 “무릇 膀胱에 있는데도 여전히 少陰病이라고 부르는 것은, 膀胱이 腰 이하의 陰에 속하면서 少陰의 府가 되는 것을 취하고, 六經의 太陽이 되는 것을 취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太陽病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이다.”<sup>27)</sup>라고 하여 張仲景은 膀胱에 병증이 있는 것을 太陽病이라고 부르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계속해서 『傷寒論』의 조문 중에 “太陽病이 풀리지 않으면서 熱이 膀胱에 뭉치면 그 사람이 마치 狂症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太陽의 經絡을 따라서 癰熱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熱이 下焦에 있는 것으로 下血시키면 이에 낫는다.”<sup>28)</sup>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 조문을 설명함에 있어 “대개 太陽은 위치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까닭으로 太陽病은 頭項強痛으로써 提綱을 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熱이 下焦에 뭉쳐있는 것은 太陽의 陽邪가 下陷한 變症인 것이다.”<sup>29)</sup>라고 하였으니, 下焦 蓄血證은 太陽病에 속하기는 하지만 本病인 提綱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變症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柯琴이 膀胱의 개념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한 것을 살펴보면 ‘앞에서 ‘隨經’이라고 말하고, ‘在裏’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으로 膀胱이 下焦에 속해 있어서 ‘太陽의 根底’는 되지만 ‘表를 주관하는 太陽’은 아닌 것이며, ‘太陽의 經隧’는 되지만 ‘太陽의

都會’는 아닌 것이고, ‘太陽을 따라 血이 속으로 들어간 것을 주관하는 것’은 되지만 ‘諸陽의 氣를 주관하는 太陽’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sup>30)</sup>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당시의 많은 학자들이 『傷寒論』에 나오는 ‘太陽’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경락적인 개념에만 치우쳐 臟腑의 位置에 따른 陰陽과 表裏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太陽과 心の 연관성

『傷寒論』에 나오는 六經 및 六經辨證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이 되는 『內經』에 나오는 陰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의 의가들은 陰陽을 三陰三陽의 經絡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니, 『素問陰陽離合論』에 보면 “帝曰: 願聞三陰三陽之離合也.”라고 하여 三陰三陽의 離合(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岐伯의 대답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三陰三陽의 位置에 대한 설명으로,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 ……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 …… 厥陰之表, 名曰少陽.”라고 하여 三陰三陽이 우리 몸에서 위치하고 있는 部位를 설명하고 있으니, 少陰-太陽이 서로 짝이 되어 신체의 後面에 위치하고, 陽明-太陰이 서로 짝이 되어 신체의 前面에 위치하며, 厥陰-少陽이 서로 짝이 되어 半表半裏에 위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는 三陰三陽의 機能(離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 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sup>31)</sup>라고 하여 太陽-太陰이 서로 짝이 되어 開(關)의 기능을 하고, 陽明-厥陰이 서로 짝이 되어

26)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61. “少陰病, 八九日, 一身手足盡熱者, 以熱在膀胱, 必便血也.”

27)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9. “夫在膀胱, 而仍稱少陰病. 是知膀胱屬腰以下之陰, 得爲少陰之府, 不得爲六經之太陽, 故不稱太陽病.”

28)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184. “太陽病, 六七日, 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發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當硬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所以然者, 以太陽隨經, 癰熱在裏故也, 抵當湯主之.”

29)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9. “蓋太陽位最高, 故太陽病, 以頭項強痛爲提綱, 此云熱結在下焦, 是太陽陽邪下陷之變症也.”

30)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9. “其云隨經, 云在裏. 是知膀胱屬在下焦, 爲太陽之根底, 而非主表之太陽; 爲太陽之經隧, 而非太陽之都會; 爲太陽主血之裏, 非爲諸陽主氣之太陽也.”

3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49-50.

鬮의 기능을 하며, 少陽-少陰이 서로 짝이 되어 樞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柯琴은 우리가 『傷寒論』에 나오는 六經 중 ‘太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經絡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보다 근원적인 ‘陰陽의 大法’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기를 “仲景의 傷寒論은 다만 ‘陰陽의 大法’을 宗主로 삼은 것이지 ‘陰陽의 經絡’에 한정되지는 않았다.”<sup>32)</sup>라고 전제하면서 “무릇 陰陽이라는 것은 흠어지면 천 가지도 될 수 있고 미루어 보면 만 가지도 될 수 있는 것이니, 心으로써 陽中之太陽으로 삼은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巨陽’이라고 부름으로써 존칭한 것이다.”<sup>33)</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膀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경락적으로 봤을 때는 ‘足太陽’이라고 붙여 있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횡격막 이하의 부위에 있으며, 그 기능도 小腸과 함께 아래쪽으로 受盛傳導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체의 表를 주관하고 營衛의 순환과 관련되는 ‘太陽’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니, “腰 이상을 陽이라고 치더라도 膀胱의 위치는 下焦의 제일 아래쪽에 나열되어 있으며, 그 經絡은 足太陽이라고 부르지만 手足의 陰陽으로써 논한다면 실제로는 陰 중에 陽이 조금 있을 뿐이고, 六府로써 陽으로 삼아 논한다 하더라도 小腸의 太陽과 더불어서 함께 受盛하는 器官일 뿐이니, 횡격막의 위쪽에 있으면서 父가 되는 ‘太陽’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sup>34)</sup>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柯琴이 ‘太陽病’을 이해함에 있어 足太陽膀胱經으로 파악하지 않고, 人體에서 자리하고 있는 腹背 및 上下의 위치로써 파악한 것으로, 『素問·金匱真言論』에 나오는 “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背爲陽, 陽中之陰, 肺也. 腹爲陰, 陰中之陰, 腎也;

腹爲陰, 陰中之陽, 肝也;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sup>35)</sup>라는 것을 이용하여 『傷寒論』에 나오는 ‘太陽’이라는 용어는 곧 ‘足太陽膀胱經’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陽中之陽인 ‘心’을 가리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2. 心主營 肺主衛

### 1) 表裏의 구분

『傷寒論』의 六經을 表裏를 나누어 보면 일반적으로 太陽은 表에 속하고 그 외의 각 經에서의 병변은 裏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sup>36)</sup>, 인체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횡격막 이상의 부위인 胸部에 邪氣가 있는 것은 表證으로 보았고, 횡격막 이하의 부위인 腹部에 邪氣가 있는 것을 裏證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素問·刺禁論』에 보면 “鬲盲之上, 中有父母, 七節之傍, 中有小心.”<sup>37)</sup>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楊上善의 주석을 살펴보면 “心은 陽이어서 父인 것이고, 肺는 陰이어서 母인 것이다. 肺는 氣를 주관하고 心은 血을 주관하여, 함께 온 몸을 營衛하는 까닭으로 父母가 되는 것이다.”<sup>38)</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柯琴의 주장처럼 ‘太陽’의 개념을 足太陽膀胱經으로 볼 것이 아니라 心主營하고 肺主衛하는 것으로 본다면,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臟腑에 해당하는 것이니, 膈(횡격막)은 인체의 上下와 表裏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부분으로, 이것과 六經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sup>39)</sup>.

또한 이것은 인체의 각 부분을 단면으로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 皮 → 血 → 肉 → 筋 → 骨로 점점 깊어지는데, 이것을 중간에 있는 肉을 기준으로 表裏로 나눈다면, 그 위쪽에 있는 皮·血을 表의

32)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8. “仲景書, 只宗陰陽大法, 不拘陰陽之經絡也.”  
33)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8. “夫陰陽, 散之可千, 推之可萬, 心爲陽中之太陽, 故更稱巨陽以尊之.”  
34)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8. “腰以上爲陽, 膀胱位列下焦之極底. 其經名爲足太陽, 以手足陰陽論, 實陰中之少陽耳. 以六府爲陽論, 與小腸之太陽, 同爲受盛器耳. 不得混, 膈膜之上, 爲父之太陽也.”

3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5.  
36) 傷寒論研究會.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15.  
3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275-276.  
38)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331. “心爲陽, 父也. 肺爲陰, 母也. 肺主於氣, 心主於血, 共營衛於身, 故爲父母也.”  
39) 馬堪溫, 趙洪鈞. 傷寒論新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00.

부위로 보고, 아래쪽에 있는 筋骨을 裏의 부위로 볼 수 있으며, 역시 皮毛를 주관하는 肺와 血脈을 주관하는 心이 表의 부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2) 營衛病

『難經·32難』에서 말하기를 “五藏俱等, 而心肺獨在膈上者, 何也? 然, 心者血, 肺者氣, 血爲榮, 氣爲衛, 相隨上下 謂之榮衛, 通行經絡, 營周於外, 故令心肺在膈上也.”<sup>40)</sup>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볼 때 횡격막 이상의 부위에는 心肺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것의 기능이 心主營하고 肺主衛하여 온 몸의 營衛循環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柯琴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太陽의 經絡이 背로 운행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背를 太陽이 주관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다투어 ‘太陽이 營衛를 주관한다’고 말하면서도 ‘營衛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太陽이 表를 주관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太陽이 실제로 裏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膀胱이 太陽의 裏가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心肺가 太陽의 裏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sup>41)</sup>라고 하여 결국 心肺의 기능이 인체의 背部를 주관하면서 太陽의 뿌리가 되는 臟腑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內經』의 陰陽에 밝지 못하였기 때문에 太陽의 地面을 알지 못한 것일 뿐이다. 『內經』에서는 背로써 陽을 삼고 腹으로써 陰을 삼았듯이, 五藏에 있어서는 心肺로써 陽을 삼으면서 背에 배속시켰으므로 仲景은 ‘胸中’과 ‘心下’를 三陽에 배속시킨 것이고; 肝脾腎으로 陰을 삼으면서 腹에 배속시켰으므로 仲景은 ‘腹中’의 증상을 三陰에 배속시킨 것이니, 이것이 陰陽과 內外가 서로 옮겨가는 의미인 것이다.”<sup>42)</sup>라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의 『傷寒論』에서 六經病을 表裏로 구분함에 있어서 外感 表病 및 胸部에 邪氣가 있는 병증은 表證으로 보고 發汗과 涌吐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腹部 이하의 병들은 裏證으로 파악하여 攻下와 溫下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음을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傷寒論』에 나오는 表病은 營衛의 병임을 알 수 있으니 表는 인체가 病邪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는 첫 번째의 방어벽이며, 그 기능의 강약은 衛氣의 성쇠와 營衛의 조화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sup>43)</sup>. 따라서 柯琴이 말하기를 “營衛는 表로 운행하면서 心肺에서 發源한다. 그러므로 太陽病은 곧 營衛病인 것이고, 營衛病은 곧 心肺病인 것이다.”<sup>44)</sup>라고 하여 太陽病을 營衛循環에 문제가 생긴 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1) 心病

『素問生氣通天論』에 보면 “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sup>45)</sup>라고 하였으니, 인체는 陽氣에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傷寒病은 寒邪가 인체에 침입함으로써 太陽에서 펼쳐는 陽氣의 작용을 손상시켜서 病을 일으키는 것이니, 陽氣를 體表에서 펼쳐는 太陽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柯琴은 太陽을 주관하는 장부인 心과 관련된 병증이 『傷寒論』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傷寒에 心病이 최고로 많은 것은 心이 太陽의 위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sup>46)</sup>라고 보았으며, 계속해서 말하기를 “心은 君主이고 寒은 賊邪이다. 君火가 부족하면 寒氣를 얻었을 때 이로써 손상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大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sup>47)</sup>라고 하여 『傷寒論』에서 心病이 많이 보이는

三陽; 肝脾腎爲陰而屬於腹, 故仲景以腹中之症屬三陰, 此陰陽內外相輸之義也.”

40) 秦越人 著, 金容辰·尹暢烈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2. p.571.

41)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0. “人皆知太陽經絡行於背, 而不知背爲太陽之所主; 競言太陽主營衛, 而不究營衛之所自; 祇知太陽主表, 而不知太陽實根於裏; 知膀胱是太陽之裏, 而不知心肺是爲太陽之裏.”

42)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0. “因不明內經之陰陽, 所以不知太陽之地面耳. 內經以背爲陽腹爲陰, 五藏以心肺爲陽而屬於背, 故仲景以胸中心下屬

43) 傷寒論研究會.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27.

44)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0. “營衛行於表, 而發源於心肺, 故太陽病則營衛病, 營衛病則心肺病矣.”

4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5.

46)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9. “傷寒最多心病, 以心當太陽之位也.”

것을 통하여도 ‘太陽’이 足太陽膀胱經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陽中之陽인 ‘心’에 해당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의가들은 太陽을 足太陽膀胱經으로 잘못 오해함으로 인하여 병리기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모순이 생긴 것이니, “지금의 傷寒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太陽을 잘못 寒水의 經絡으로 삼은 것으로, 이것은 膀胱이라는 水府에 한정되는 것이니 ‘以寒召寒’한다는 설명이 생기게 된 것이며, ‘寒邪가 心을 침범’한 ‘水來剋火’하는 의미를 살피지 못한 것이다.”<sup>48)</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柯琴이 말하는 ‘心病’의 개념은 ‘심장 자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一身의 氣血을 거느리면서 心主營하는 ‘심장의 기능과 관련된 질병’을 말하는 것이며, 『傷寒論』에서는 그것을 주로 風寒의 邪氣가 인체의 표층에 침입함으로써 생기는 ‘發熱’, ‘惡寒’, ‘汗出’ 등과 같은 營衛循環과 관련된 병증으로 설명하면서, 다른 증상으로는 ‘心煩’, ‘心悸’, ‘心痛’, ‘心下悸’, ‘心下痞’, ‘心中懊憹’, ‘衝心’ 등등을 모두 心과 관련된 병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尤在涇은 傷寒에 心病이 제일 많다는 이러한 柯琴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말하기를 “傷寒을 비록 大病이라고 말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死症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寒邪가 心에 침범하여 水來克火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진실로 이것은 寒邪가 직접적으로 心臟으로 들어간 질병이니, 대개 傷寒으로 表層의 부위에 존재하는 질병은 아닌 것이다.”<sup>49)</sup>라고 하여 柯琴이 말하는 心病을 『靈樞 厥病』에 나오는 “眞心痛, 手足清至節, 心痛甚, 旦發夕死, 夕發旦死.”<sup>50)</sup>한다는 眞心痛의 개념으로만

과약하고 있어서 柯琴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柯琴은 傷寒病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身熱이 나는 것도 心火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무릇 사람이 寒에 손상되었을 때 熱이 비록 심하더라도 죽지 않는 것은, 寒이 존재하는 것은 邪氣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熱이 존재하는 것은 心이 주관하는 바이기 때문이다.”<sup>51)</sup>라고 하여 外感 風寒의 邪氣에 손상되었지만, 우리 인체는 그 邪氣에 저항하기 위하여 心의 君火가 저항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傷寒論』에서 心病에 대해서 언급한 조문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처음 桂枝湯을 복용하고서 도리어 煩하거나, 혹은 풀렸다가 만나질 정도 지난 후에 다시 煩하는 것, 大靑龍湯의 煩躁, 小靑龍湯의 水氣, 十棗湯과 瀉心湯의 心下痞硬, 白虎湯과 五苓散의 躁渴이나 心煩이 모두 心病이다. 만약 망령되게 치료한 후에 叉手冒心하거나 恍惚心亂하고 心下逆滿하여 왕왕 心과 관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心病이 太陽의 本病이 되기 때문이다.”<sup>52)</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太陽病 이외의 곳에서도 心病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러나 心은 한 몸의 주인이 되므로 六經이 모두 病에 걸리면 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陽明에는 憤憤·怵惕·懊憹하는 등의 증상이 있고, 少陽에는 煩悸·支結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며, 太陰의 暴煩과 少陰의 心中溫溫欲吐 및 厥陰의 氣上撞心하여 心中疼痛하는 모든 것이 心病이 된다.”<sup>53)</sup>라고 하였다.

47)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9. “心爲君主, 寒爲賊邪. 君火不足, 寒氣得以傷之, 所以名爲大病.”  
 48)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9. “今傷寒家, 反以太陽爲寒水之經, 是拘於膀胱爲水府, 因有以寒召寒之說, 而不審寒邪犯火, 水來剋火之義矣.”  
 49) 尤在涇 著,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46. “傷寒雖曰大病, 未必是死症. 若寒邪犯心, 水來克火之說, 自是寒邪直入心臟之病, 而非大概傷寒在表之病矣.”  
 50) 王冰 編纂,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626.

51)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9. “夫人傷於寒, 熱雖甚不死者, 以寒所在, 是邪之所留, 熱之所在, 是心之所主也.”  
 52)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9. “初服桂枝而反煩, 或解半日而復煩, 大靑龍之煩躁, 小靑龍之水氣, 十棗瀉心之心下痞硬, 白虎五苓之躁渴心煩, 皆心病也. 若妄治後, 叉手冒心, 恍惚心亂, 心下逆滿, 往往關心. 是心病爲太陽本病也.”  
 53)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29. “然心爲一身之主, 六經皆能病及. 故陽明有憤憤怵惕懊憹等症, 少陽有煩悸支結等症, 太陰之暴煩, 少陰之心中溫溫欲吐, 厥陰之氣上撞心中疼痛, 皆心病也.”

## (2) 肺病

『素問玉機眞藏論』에 보면 “今風寒客於人，使人毫毛畢直，皮膚閉而爲熱，當是之時，可汗而發也。……弗治，病入舍於肺，名曰肺痺，發欬上氣。”<sup>54)</sup>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風寒의 邪氣가 皮膚로부터 인체에 침입했을 때 發汗을 통하여 제대로 치료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皮毛는 肺와 습하고 肺는 衛氣를 주관하기 때문에 증상은 비록 太陽에 속하지만 肺가 실제로 邪氣를 받음으로써 咳嗽나 上氣의 증상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柯琴은 “肺居心外，爲太陽之表耶.”라고 하여 肺는 太陽에 해당하는 心을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면서 表의 위치에 있으며, 그것과 관련된 병증을 營衛循環과 관련된 병증으로 보면서 그 구체적인 증상 및 치료 약물을 설명하고 있으니, “心病이면 곧 惡寒하는 것이고, 肺病이면 곧 發熱하는 것이며; 心病이면 곧 煩하는 것이고, 肺病이면 곧 喘하는 것이다. 桂枝는 寒을 치료하고, 芍藥은 煩을 그치게 하며, 麻黃은 熱을 발산하고, 杏仁은 喘을 제거한다. 따라서 ‘和營’하는 것이 바로 ‘寧心’하는 것이고; ‘調衛’하는 것이 바로 ‘保肺’하는 것이다. 麻黃湯과 桂枝湯 두 개의 처방은 곧 內外를 조화되게 하여 表裏를 양쪽으로 풀어주는 방제이다.”<sup>55)</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傷寒論』의 太陽病 부분을 살펴보면 주로 桂枝湯과 麻黃湯을 위주로 사용하면서 營衛를 조화시키는 쪽으로 치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桂枝湯은 주로 解肌를 통하여 調和營衛함으로써 太陽傷風證을 치료하고 있으며, 麻黃湯은 주로 發汗시킴으로써 衛陽이 鬱滯된 것을 풀어주어서 太陽傷寒證을 치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太陽病 치료법에 대한 견해

『傷寒論』의 太陽病證을 살펴보면 君火가 外感 風寒의 邪氣를 받음으로써 인체 營衛氣血의 循環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질병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부위로 볼 때에는 주로 璿격막 이상의 부위인 胸部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주로 君火를 보존함을 우선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방법으로는 辛溫解表藥으로 陽氣를 도와서 發汗을 시키거나, 아니면 寒邪로 인해서 체내 氣血循環의 장애로 인하여 쌓인 水分을 利水를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기본적인 치료방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 君火(陽氣)를 보존함

柯琴이 『傷寒論』에서 太陽病을 치료한 방법을 요약한 것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君火를 보존하는 것을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삼았으니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發汗法이니 “太陽은 表를 주관하면서 心君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임금이 사는 도읍에는 邊境에 관문이 있는 것과 같다. 風寒을 처음 감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 太陽의 경계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직 發汗시키는 것이 최고로 급한 임무이니, 自汗이 나면서 풀리는 것이 변경의 관문에서 대비함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반드시 發汗시키면 풀리는 것이니, 이것은 君主의 명령이 시행되는 것이다. 만약 發汗시켰는데도 땀이 나지 않거나, 發汗이 되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君主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 것과 같다.”<sup>56)</sup>라고 하였으며,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무릇 汗을 心の 液이라고 하지만 근본은 水의 氣이니, 傷寒에 있어서는 天時의 ‘寒水之氣’가 되는 것이고, 人身에 있어서는 皮膚의 ‘寒濕之氣’가 되는 것이며, 發汗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君主의 ‘陽和之氣’가

54)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23.

55)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0.  
“心病則惡寒, 肺病則發熱; 心病則煩, 肺病則喘. 桂枝療寒, 芍藥止煩, 麻黃散熱, 杏仁除喘. 所以和營者, 正所以寧心也; 所以調衛者, 正所以保肺也. 麻桂二方, 便是調和內外表裏, 兩解之劑矣.”

56)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0.  
“太陽主表, 爲心君之藩籬, 猶京師之有邊關也. 風寒初感, 先入太陽之界, 惟以得汗爲急務, 自汗而解, 猶邊關之有備也. 必發汗而解, 是君主之令行也. 若發汗而汗不出, 與發汗而仍不解, 是君主之令不行也.”

되는 것이니, 君火의 陽이 속에서 발생하면 寒水의 邪氣가 밖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太陽의 傷寒을 치료할 때에는 發汗을 第一義로 삼는 것이다.”<sup>57)</sup>라고 하였다.

둘째, 利水法이니 “만약 君火가 不足하면 곧 腎液이 心下로 옮겨지는 것이니, 心으로 들어가서 汗이 되지 못하고, 또한 아래쪽 膀胱으로 옮겨질 수 없으면 心下에 水氣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利水하는 것이 傷寒을 치료하는 第二義인 것이다.”<sup>58)</sup>고 하였다.

셋째, 淸火法이니 “만약 君火가 太盛하여 煩躁와 消渴 등의 증상이 있으면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自焚해 버릴 것이 염려되므로 ‘淸火’하는 것이 太陽 傷寒의 反治法인 것이다.”<sup>59)</sup>라고 하였다.

넷째, 溫補法이니 “만약 君火가 衰微하여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 風寒이 안으로 藏府에 침입하면 반드시 扶陽함으로써 그것을 防禦하여야 하므로 ‘溫補’도 또한 太陽 傷寒의 從治法인 것이다.”<sup>60)</sup>라고 하였다.

## 2) 發汗法과 治水法

柯琴은 發汗과 利水가 太陽病을 치료하는 두 가지 큰 法門이라고 보았으니, “發汗은 形層의 차례로 나누는 것이고, 利水는 三焦의 高下로 정하는 것이니 모든 것이 이른바 太陽의 氣를 변화시키는 것이다.”<sup>61)</sup>라고 보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發汗에 五法이 있다고 보았으니 “麻黃湯은

汗이 皮膚에 있는 것이니 外感의 寒氣를 발산시키는 것이다. 桂枝湯은 汗이 經絡에 있으니 血脈의 精氣를 소통시키는 것이다. 葛根湯은 汗이 肌肉에 있으니 津液의 淸氣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大靑龍湯은 汗이 胸中에 있으니 안에서 요란스러운 陽氣를 解散시키는 것이다. 小靑龍湯은 汗이 心下에 있으니 속에 축적된 水氣를 몰아내는 것이다.”<sup>62)</sup>라고 하였다.

둘째, 治水에는 三法이 있다고 보았으니 “乾嘔하면서 咳嗽하거나 물을 먹으면 곧바로 吐하는 것은 水氣가 上焦에 있는 것으로, 위에 있는 것은 汗을 통해서 발산하는 것이니 小靑龍湯이나 五苓散이 이것이다. 心下痞硬하고 硬滿하면서 痛症이 있는 것은 水氣가 中焦에 있는 것으로, 中滿한 것은 속으로 瀉下시키는 것이니 十棗湯이나 大陷胸湯이 이것이다. 熱이 膀胱으로 들어가서 小便不利한 것은 水氣가 下焦에 있는 것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잘 인도하여 없애버려야 하니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이 이것이다.”<sup>63)</sup>라고 하였다.

## III. 結 論

柯琴은 『傷寒論』에서 말하는 太陽病의 개념을 횡격막의 上部에 존재하면서 一身의 氣血을 거느리는 陽中之 陽(巨陽)인 ‘心’과 관련된 병증으로 파악하여, 질병이 나타나는 특징이 위치적으로는 인체의 제일 表層 이면서 上部에 존재하는 병증들과, 기능적으로는 또한 橫격막 이상의 부위에 表裏의 관계로 존재하는 ‘肺’와도 연관이 있어 ‘心主營, 肺主衛’하는 營衛循環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병증이라고 보았으니, 그의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7)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0. “夫汗爲心之液, 本水之氣. 在傷寒爲天時寒水之氣, 在人身爲皮膚寒濕之氣, 在發汗爲君主陽和之氣. 君火之陽內發, 寒水之邪外散矣. 故治太陽傷寒, 以發汗爲第一義.”

58)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0. “若君火不足, 則腎液輸於心下者, 不能入心爲汗, 又不能下輸膀胱, 所以心下有水氣也. 故利水, 是治傷寒之第二義.”

59)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p.30-31. “若君火太盛, 有煩躁消渴等症, 恐不戢而自焚, 故淸火是太陽傷寒之反治法.”

60)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1. “若君火衰微, 不足以自守, 風寒內侵於藏府, 必扶陽以禦之, 故溫補是太陽傷寒之從治法.”

61)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1. “發汗分形層之次第, 利水定三焦之高下, 皆所以化太陽之氣也.”

62)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1. “麻黃湯汗在皮膚, 是發散外感之寒氣. 桂枝湯汗在經絡, 是疏通血脈之精氣. 葛根湯汗在肌肉, 是升提津液之淸氣. 大靑龍汗在胸中, 是解散內擾之陽氣. 小靑龍汗在心下, 是驅逐內蓄之水氣.”

63)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31. “治水有三法. 乾嘔而咳, 水入即吐, 是水氣在上焦, 在上者汗而發之, 小靑龍五苓散是也. 心下痞硬硬滿而痛, 是水氣在中焦, 中滿者瀉之於內, 十棗湯大陷胸是也. 熱入膀胱, 小便不利, 是水氣在下焦, 在下者引而竭之, 桂枝去桂加茯苓是也.”

첫째, 『傷寒論』에 나오는 ‘太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經絡에 얽매이지 말고 臟腑의 位置와 관련하여 살펴야 할 것이니, 인체에서 횡격막 이상의 부위에 위치하면서 陽中之陽에 해당하는 心으로써 太陽을 삼았다.

둘째, 營衛는 表로 운행하면서 心肺에서 發源한다고 보았으니, 그러므로 太陽病은 곧 營衛病이고, 營衛病은 곧 心肺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傷寒에 心病이 최고로 많은 것은 寒邪가 침입하여 君主인 心을 침범한 것과 같은 것으로, 心이 陽中之陽인 太陽의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넷째, 風寒의 邪氣가 皮毛로 침입하면 皮毛는 肺와 합하고 肺는 衛氣를 주관하면서, ‘肺居心外’하여 太陽인 心의 表에 해당되기 때문에 肺가 실제로 邪氣를 받음으로써 咳嗽나 上氣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섯째, 太陽病證을 살펴보면 君火가 外感 風寒의 邪氣를 받음으로써 인체 營衛氣血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질병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邪氣가 있는 부위는 인체 表部 및 횡격막 이상의 胸部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太陽病의 치료법은 주로 心火의 君火(陽氣)를 도와주는 치료법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發汗法, 利水法, 清火法, 溫補法 등이 있다.

柯琴은 『傷寒論』을 설명함에 있어 주로 『內經』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여 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후세의 의가들은 그의 이론에 대하여 매우 높이 평가하여 傷寒病을 연구하고 학습하기 위한 중요한 저작으로 인식하였으니, 그의 영향을 받은 후대의 의가들로는 葉天士, 尤在涇, 俞根初, 徐靈胎, 周學海, 沈金鰲 등이 모두 그의 학설을 인용하여 서술하였다<sup>64)</sup>.

논자는 향후 柯琴의 醫論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통하여 그의 이론의 독창성과 실제 임상에서의 실용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64)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791.

## 參考文獻

### <논문>

1. 이동희, 이준범, 황만섭, 윤종화. 『素問熱論』 六經分證과 『傷寒論』 六經辨證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4. Vol.21, No4. pp.145-156.
2. 田炳薰, 禹元洪, 鄭遇悅. 傷寒論의 六經概念에 對하여. 동의병리학회지. 1990. Vol.5. pp.131-138.
3. 鄭城采, 朴炫局. 傷寒 理論의 發展史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87.
4. 張祐彰, 丁彰炫, 柯琴 『傷寒附翼』 翻譯 研究.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5. V18-3. pp.183-206.
5. 張祐彰, 洪元植. 柯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 (『傷寒論翼』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2. V15-2. pp.120-144.
6. 丁彰炫, 朴贊國. 仲景『傷寒論』의 六經實質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사학회지. 1993. Vol.7. pp.232-268.

### <단행본>

1. 柯琴. 傷寒論翼.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5. p.5, pp.28-31.
2. 顧武軍. 傷寒論求是鈎玄.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51-53.
3. 馬堪溫, 趙洪鈞. 傷寒論新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96, 100.
4. 裴永清. 傷寒論臨床應用五十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6, 37. pp.37-39.
5. 傷寒論研究會.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15, 27.
6. 徐靈胎 著, 林直清 校勘.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五洲出版社. 1981. 권3 pp.210-214.
7.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331.
8.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191, 791.
9. 王冰 編纂,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626, 904.
10.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5, 19, 25, 59, 123, 183, 195. pp.49-50,

- 183-184, 275-276.
11. 尤在涇 著,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345-346.
  12. 劉渡舟. 劉渡舟傷寒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8. p.17.
  13.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184, 196, 261.
  14. 秦越人 著, 金容辰·尹暢烈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2. p.571.
  15. 韓祗和. 傷寒微旨論. 中國醫學大系 卷6. 麗江出版社. 1986. p.738(544).